

❖ 아모스 2 장,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 2’

들어가기

본 장은 1 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드고아의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택하신 후,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들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온갖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2 장에서도 하나님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온갖 불의를 일삼았던 모압의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1.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3 절)

-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큰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 참고로 롯이 자신의 둘째 딸과 동침해 낳은 아들 ‘벤 암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_____
 - 참고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_____
 - 곧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혈연관계/친족관계가 있는 형제국가라 볼 수 있음!!

-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모압의 죄는 무엇인가? (1 절)
 - => ‘...이제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 참고로 성경에 나타난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부터 몇 가지만 주목.

- ①.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함! (민 22-24 장)
- ②.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여 음행을 행하며 우상숭배하게 만듦, 이 일로 24,000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 (민 15 장)
- ③. 사사 시대에는 18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힘 (삿 3 장)
- ④. 그 후 통일왕국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이고 속국으로 지냈으나, 남북이 분열되면서 독립하여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며 괴롭힘 .

=>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저들의 죄악은 다 제쳐두시고, 특별히 저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심!!

=> 이것은 열왕기하 3 장의 유다/북이스라엘/에돔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을 배경으로 함!

- 당시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자 배반 후 독립!
-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아합의 아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모압을 치러 가면서 에돔 왕을 데리고 감! => 따라서 연합군이 형성됨!!
- 결국 대규모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은 성 위에서 자신의 큰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며 발악했고, 이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충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감!

-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지 수년 후에, 모압 사람들은 이에 대한 분풀이로 당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한 에돔 왕의 묘를 파서 그 뼈를 불살라 가루로 날려버리는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

=>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제물로 삼으며 우상 숭배를 행하던 모압 사람들의 반인륜적인 죄악과 우상숭배를 책망하신 것!!

■ 그럼 하나님께서 모압에 내리실 심판은 무엇인가? (2-3 절)

- ①.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궁궐들은 불타며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
 - 곧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압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예언 하신 것!!
 - ②. 특히 '재판장을 열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실 것'이라 선언하심!!
 -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모압을 대표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자들이요, 또한 다시 세울 자들!
 - 그런데 모든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다 죽이실 것이라 선언하심!
 -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는 모압이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신 것!!
- ✓ 실제로 이 같은 예언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Nabopolassar)' 왕이 앗수르를 멸망시킬 때 완전하게 성취됨!

2.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4-5 절)

■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유다의 죄는 무엇인가? (4 절)

- ①.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한 죄!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 (ex: 율타리를 생각해 보라!)
 - =>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고, 인정치 않고 무시하고자 함!! => 이것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
 - ②.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 참고로 율례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삶의 지침들 (ex: 시편/잠언/etc.)
- ✓ 특별히 신명기 6 장 1-9 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가르치셨음!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 곧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저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율법/율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신 것!

③.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우상들)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함!

-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심판은 무엇인가? (5 절) =>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르실 것!

3.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6-16 절)

-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6-12 절)

①.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죄! (6 절)

-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켄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 곧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는 재판장들과 적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종으로 팔고 사는 악한 사회를 책망하신 것!

②. 약자를 돌보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죄! (7 절)

-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 참고로 여기서 ‘힘 없는 자’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참혹한 환경에 있는 자를 의미!
-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저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저들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책망하심!!
- 참고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값있는 행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고 나타내는 삶으로 여기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음!!!

③. 성적 타락과 음행의 죄! (7 절)

-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음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나타내는 것!

④. 지도자들의 탐욕과 악함을 책망! (8 절)

-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 a. 우선 여기서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겂옷을 의미함!
 -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겂옷은 평소 저들의 이불로도 사용되었음!
 - 따라서 율법은 혹 가난한 자의 겂옷을 전당 잡으면 밤이 오기 전 돌려주라고 가르침!

참고: 신 24:12-13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 b. 또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주목하면,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
 - 당시 지도자들은 중죄를 저지를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벌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정한대로 재물과 포도주로 벌금을 내게 하고는, 그것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
 -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것!!

⑤.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죄! (9-12 절)

-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2 가지 은혜
 - a. 백향목 같이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뿌리까지 멸하여 주심!
 - 곧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의미!
 - b. 북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와 나실 인을 구별하여 세워주심!
 -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며,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
 -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오히려 나실인들에게는 술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함!

■ 그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은 무엇인가? (13-16 절)

=>13 절,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 우선 여기서 ‘누르리니’ 라는 말의 히/원=‘헤이크’란 말로, ‘눌림을 당하다’는 수동태!
 -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수레에 눌림을 당하는 진흙처럼 적들에게 짓눌림을 당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선언!
 - 특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심!
-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